

사회

성범죄·차량파손 빈번 “밤만되면 불안”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책 급하다

〈중〉 광주 강력범죄 다발지역 가보니

유형가 밀집 방범취약... 주민들 “이사가고 싶어”

“북하면 차문 열고 푼돈을 집어간 단 말이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마음 놓고 주차도 못해요.”

16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 남대 상대 인근 주택가. 작은 골목길

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수십 채의 주택이 즐비하다. 꼬불꼬불 이어지는 골목길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빼곡했다. 신통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한적한 골목에는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이 눈에 띄었다.

막 집을 나서는 문모(47)씨에게 “동네가 조용한 편이냐”고 물었다. 문씨는 “지금은 조용한 편이지, 하지만 밤만 되면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이 때문에 난리다”며 “간밤에 인근 주택이나 원룸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아침에 집을 나서면 창문이 뜯긴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 살기 쫓겠느냐”고 불편 표정이다. 용봉동은 지난해 살인 1건, 강도 1건, 강간·추행 34건, 절도 540건, 폭력 419건 등 광주에서 3번째로 많은 5대 강력범죄가 발생한 곳이다. 절도 사건은 최다 발생지역

이다. 이 같은 이유는 전남대 상대 인근 유흥가와 함께 최근 옹골지구 유흥가가 급격히 커지면서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추세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범이 취약한 주택들도 많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밤이면 차량 통행이 적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차량들이 빼곡히 주차돼 차량 절도범죄의 먹잇감이 되기도 한다. 최근 발생한 절도 사건대 상도 대부분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다. 문씨는 “누군가를 아파트에 살고 싶

지 않아서 주택에 살겠느냐”며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사는 곳만 노리는 절도범죄들이 무심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서민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절도범에 두 번 울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광주에서 두번째로 많은 5대 강력 범죄가 발생한 쌍촌동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서민들이 모여 사는 쌍촌동 주공아파트 인근은 밝은 대낮에도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골목들이 많았다. 소위 잘 나간다는 쌍촌동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차모(57)씨는 “10여년째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최근에 인근에서 영아유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등 안 좋은 소문들이 많다”며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 주민들 간에도 위화감이 생기고 동네가 술렁인다. 여유만 되면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kki@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18분 해질 18시 16분 달돋이 03시 29분 달질 13시 39분

**구름많고 눈**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많고 눈이 오겠다.

광주	구름많고거름눈	-3/0°C
목포	구름많고거름눈	-3/0°C
여수	구름조금	-4/1°C
나주	구름많고거름눈	-6/1°C
완도	구름맑음	-4/2°C
구례	구름맑음	-5/0°C
강진	구름맑음	-3/2°C
해남	구름많고거름눈	-5/1°C
장흥	구름맑음	-5/1°C
순천	구름맑음	-3/1°C
영광	구름맑음	-6/0°C
진도	구름맑고한때눈	-3/2°C
전주	구름맑음	-6/0°C
군산	구름맑음	-6/0°C
남원	구름맑음	-7/1°C
홍산도	구름맑고거름눈	-1/1°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관심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관심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목포 10:33 02:5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목포 22:37 16:24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여수 06:05 12:26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여수 18:06 00:00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6/0	-6/3	-3/6	-1/9	2/7	3/9

광주고법·지법원장 취임 인터뷰

“법정 소통 국민신뢰 찾아야”

이진성 광주고법원장



등 10권의 책을 발간하기도 한 그는 “모두가 참여해 협동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법원장은 또 짧은 법관들에 대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스스로 갈고 닦아 재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법부 존립의 근간인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판 실무에서 고칠 점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고 각자의 재판능력과 업무 능력의 향상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진성 광주고법원장(56·연수원 10기)이 16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고법원장은 이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은 법정에서부터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그림자배심원·판사와 함께 하는 재판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이 고법원장은 부산지법 판사, 서울지법 의정부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당사자 배려 감동재판 열것”

지대운 광주지법원장



“합체돼 있는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정말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일 취임한 지대운(54·연수원 13기) 광주지법원장은 취임식장에 모인 판사 및 직원들에게 ‘관행’조차 고쳐야 하는 시정임을 강조했다. 지 법원장은 “재판의 진정한 권위는 재판 당사자가 마음으로 승복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다”며 “법 지식과 현란한 논리로 설득하기보다는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 아픔에 공감하는 재판, 그 호소에 귀 기울이는 재판, 당사자를 배려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대운 광주지법원장은 “합체돼 있는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정말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일 취임한 지대운(54·연수원 13기) 광주지법원장은 취임식장에 모인 판사 및 직원들에게 ‘관행’조차 고쳐야 하는 시정임을 강조했다. 지 법원장은 “재판의 진정한 권위는 재판 당사자가 마음으로 승복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다”며 “법 지식과 현란한 논리로 설득하기보다는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 아픔에 공감하는 재판, 그 호소에 귀 기울이는 재판, 당사자를 배려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88년 당시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하기도 했던 그는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시절 신속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 저비용의 파산판재인 선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도입하고 기업회생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시켜 호평을 받기도 했다. 강원 고성 출신인 지 법원장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초·중등 교원인사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17일 초·중등 교원 1586명에 대한 전보 및 신규발령 인사를 3월1일자로 단행한다. 초등 인사대상자는 617명, 중등은 모두 969명이다. 교장·교감 등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는 다음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식용유 치즈’ 쓴 피자프랜차이즈 9곳 적발

치즈업체 3곳도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16일 광주지역 업체 5곳을 포함한 전국의 피자프랜차이즈 본점 9곳과 치즈 제조업체 3곳을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자연산 치즈는 우유를 주원료로 해서 만든 반면 가공치즈는 자연치즈에 식품첨가물을 넣어 만든 것이며, 모조 치즈는 식용유 등에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치즈와 유사하게 만든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광주 소재 난타 5000(가맹점수 80곳)과 피자 가가 막혀(70곳)는 피자 테두리에 전분, 식용유, 산도조절제 등이 첨가된 가공치즈를 사용하고 100% 자연산치즈를 사용한다고 전단지, 피자박스 등에 허위로 광고하거나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또 스타승일삼치즈피자(가맹점수 9곳), 치즈마을임실치즈피자, 임실치즈&79피자는 피자 토핑치즈에 모조치즈가 혼합된 치즈믹스 등을 사용하면서 가맹점 간판, 피자 박

스 등에 100% 자연산치즈만 사용한다고 허위로 광고하거나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타지역 업체인 피자스쿨(가맹점수 688곳·313억원), 59피자(가맹점수 546곳·136억원), 피자마루(가맹점수 506곳·126억원)는 판매액이 수백억원에 달했다. 이들 업체들은 자연산 치즈 대신 가공·모조 치즈를 이용해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50여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피자스쿨 측은 “가공 치즈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 토핑용으로 사용된 치즈는 100% 자연산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민기기자 emlee@kwangju.co.kr

SINCE 1982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리나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X 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기대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

광신대학교

2012-1 여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지원자격: 세례교인인 재(학력제한 없음)  
수업형태: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교육일시: 2012년 3월 5일 개강 / 한 학기 15주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수강료: ① 등록금: 700,000원(한 학기당) ② 입학금: 50,000원  
제출서류: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전원료: 5,000원  
혜택: ①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② 본교 증임도서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학생증 발급(학생에 준하는 열람 및 대출가능)

여전도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 교양과목과 성경 및 신학과목은 물론 상담학, 심리학 등 당회장을 보필하는 여전도사로서의 인격을 연마하는데 목적이 있음.

여성가족부 인정 2012-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교육일시(총100시간) ▶ 월, 화, 목, 금 오후 6:00~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모집대상 <각 항목 1개만 해당되면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